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필츠코리아, 17회 Safe in Pilz 세미나 개최 “스마트 팩토리 시대, 도대체 안전은 어디에?”



LG전자 윤장혁 실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되었다.

지난 3월 8일 열린 국내 산업 안전을 위한 필츠 안전 세미나(Safe in Pilz)가 17회를 맞이하였으며, 220명이 넘는 고객들이 참석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필츠 안전 세미나(Safe in Pilz)는 2013년에 처음 시작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였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

총 참가 고객은 220명이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및 디스플레이, 포스코, 한국안센 등 엔드유저 고

객들이 주를 이뤘다. 기존 신청 인원은 150명에 한했지만, 예상외로 뜨거운 사전등록 반응에 행사 참가 인원수를 늘렸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세미나와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접근했다. “스마트 팩토리 시대, 도대체 안전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첨단 제조산업의 기술력이 실제 작업장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오전 세션에 한지명 팀장이 발표한 ‘도대체 안전은 어디에’ 세션에서는 최근 제조업에서의 안전사고 통계와 현황을 짚어보고, 실제 국내 사고 사례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한지명 팀장이 “스마트 팩토리 시대, 도대체 안전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를 다루었다. 이에 고객들은 “적나라한 위험한 실제 현장 작업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LG전자의 환경안전실 윤장혁 실장이 특별 연사로 초청되어 LG전자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LG를 제외한 많은 엔드유저들도 참석한 이번 행사였기에, LG전자의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에 대한 열정이 담긴 해당 세션을 듣고 자사의 안전 환경과 비교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들을 수 있었던 임창묵

과장의 오후 발표 세션 또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후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한지명 팀장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번 세미나는 풍성한 콘텐츠와 유익한 주제로 행사 전부터 많은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이후 분위기 환기를 위해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이 있었고, 고객들이 아카펠라를 직접 따라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Safe in Pilz’ 세미나는 2018년의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각각 6월, 9월에 광주와 대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 관련 문의나 요청사항은 필츠코리아 마케팅팀(031-778-3333)으로 연락 바란다.